

News

기업銀 배당성향, 4년 만에 30% 이하... "민간과 형평성 고려"

머니투데이

기업은행은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 4년 만에 30% 이하 배당성향. 배당 총액은 3729억원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지급을 결정.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의 배당 자체 권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20%대로 배당성향을 결정한 데에는 타 금융지주와의 형평성을 위한 결정으로 풀이

네이버·카카오와 동맹 접은 KB... "정면승부 하겠다"

한국경제

KB금융지주가 인공지능(AI) 금융 스피커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해온 네이버와의 협업을 최근 중단하며 빅테크와 동맹 없이 독자 노선을 택한 유일한 은행이 됐다. 빅테크와 거리를 두는 것은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플랫폼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윤종규 회장의 목표. 올해 경영전략 방향은 '넘버원 금융 플랫폼 기업'

주택담보대출도 조인다... 신한은행 우대금리 0.2%p 축소

연합뉴스

신한은행은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결국 관련 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높아지는 셈.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는데, 서민금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실질적 자금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금리 등 상품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

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 임기 1년 연장

매일경제

우리금융은 권 행장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조직 내실을 기하고 있는 점, 디지털 환경에 신속히 대응, 채널 혁신의 일환으로 영업력을 강화 등을 고려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 다만 이번엔 2년 임기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행장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 데는 실적 부진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주식, 개인 공매도로 빌려주나... '제한적 대어' 검토

머니투데이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개인들의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 국내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한정해 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대주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식물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져 연금의 지원방안이 거론. 또 2018년 이전 매년 100억원대의 대여수익을 내 주식운용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

메리츠화재, 283억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목적

연합인포맥스

메리츠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283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4일 공시.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4천3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순항'하고 있지만, 주가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초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4월부터 보장성보험 보험료 '줄인상' 예고

서울파이낸스

생보사들이 이달부터 보장성보험 예정이율을 인하함에 따라 내달부터 보험료가 본격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 범위는 약 5~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중신보험 등 장기 보험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한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자연히 오르게 된다.

삼성, 메리츠 등 손보사 수장 잇따라 연임 성공... DB손해, 흥국도 관심

파이낸셜뉴스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과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연임에 성공. 이달 임기 만료되는 DB손해보험 김정남 부회장, 흥국화재 권중원 사장의 연임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영무 부회장 연임 결정은 삼성화재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5.9% 성장했기 때문이며 메리츠화재 김용범 부회장 또한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한 이력에 근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